

“5월 1일 ‘장흥 군민의 날’ 바꾸자”

장흥군 산하 86개 기관·단체 72% “변경” 응답 시대적 상황·역사성 등 고려 안돼 재지정 여론

매년 5월 1일 치러지고 있는 ‘장흥 군민의 날’을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기존 군민의 날이 시대적 상황과 역사에도 맞지 않아 재지정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현행 매년 5월 1일 치러지는 군민의 날 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달 7일부터 15일까지 군산하 86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다. 설문 결과 72%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가 군민의 날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올해는 5월 2일 임시 군민의 날 행사를 치른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새로운 날을 택해 군민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같이 군민의 날 재지정 여론이 나온 이유는 5월 1일인 현행 군민의 날이 근로자

의 날로 행사 참여도가 낮고 장흥의 상징과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지정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흥군민의 날 동양의 3대 보림의 하나인 유치면 ‘보림사’의 상징성을 들어 1970년 5월 20일 ‘보림문화제’ 행사로 시작돼, 그 이듬해인 1971년 4월 15일 보림문화제(고싸움과 민속놀이)와 함께 제1회 군민의 날 시행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1978년에 5월 9일로 해오다 다시 1990년부터는 5월 1일 변경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에 대해 장흥지역 문화예술 관계자들은 “정부가 국경일을 역사와 상징성에 맞춰 운영하는 점을 비추어볼 때 장흥군민의 날은 독립운동 만세를 최초 불렀던 (1919년 3월 15일)나 장흥읍 승격 (1936년 11월 1일)하던 날짜 등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5월 1일을 군민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장흥을 포함해 강진과 해남, 곡성군 등 4개군으로 알려져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가축분뇨 액비처리시설 허가 싸고 주민 갈등 강진군, 양돈영농조합법인에 공사중지 명령

허가 부서 공무원 직위해제

강진군이 가축분뇨 액비 자원화시설 허가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갈등을 겪었던 군동면 화방마을 A양돈영농조합법인 시설에(광주일보 3월 5일자 6면 보도)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강진군은 이 과정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뒤늦게 통보한 허가부서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단행했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15일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고 가축분뇨 액비 자원화시설의 유해방지 시설인 집수정(배수시설) 계획 미이행, 개발행위기간(2017년 3월 31일)종료, 저수지 손상 공사 추진 중, 약취발생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군은 한번 기피시설이 들어서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피해와 주민들의 스트레스 등 ‘삶의 질’에 대한 우선권과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막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허가 부서가 조정위원회에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통지문을 10여일 이상 미루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주무과장인 민원과장을 직위해제하고 담당 6급 계장도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했다. 이를 두고 허가 과정에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과 허가 공무원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최종 문책성 인사로까지 번졌다는 것이 주민들의 중론이다. 한편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A업체는 공사중지처분취소청구와 공사중지 집행정지 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특량만강진만권행정협의회 총회 지난 5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특량만강진만권 행정협의회 2019년 제1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정기회의는 이승욱 강진군수 등 4개 군의 군수와 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공동발전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강진군 제공>



영암왕인문화축제, 주한외교 사절단 방문 10개국 25명 개막식 참여...도갑사·도기박물관 등 둘러봐

영암군은 2019 영암왕인문화축제를 맞아 주한외교사절단 10개국 25명의 외교사절단이 지난 4-5일 1박2일 일정으로 지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주한 외교 대사 및 통역단으로 구성된 주한외교사절단은 방문 첫날 ‘왕인의 빛! 소통·상생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 아래 열린 영암왕인문화축제 개막식 및 왕인호 상생의 뜻을 올리는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사진) 다음 날 도갑사, 도기박물관, F1경기장에서 카드 체험을 하는 등 영암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통평 균수는 주한외교사절단과 환영 만찬을 갖고, 영암을 방문해 준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영암군의 특산품인 영암도기를 선물로 전달했다. 주한외교사절단을 대표해 단장인 로돌포 솔라노 쿨로스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는 “영암왕인문화축제가 대한민국 우수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고 전통평 균수와 조경기 군의회회장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주한외교사절단 초청을 통해 우리나라 대표 인물축제인 영암왕인문화축제를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함께하는 글로벌 축제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영암=문병선 기자 moon@

장흥 관산읍 죽청뜰 농경지 퇴적물 ‘몸살’

생활쓰레기·하천 수초 유입 우수기엔 상습 침수피해 우려 장흥군·농어촌공사 책임전가 농민들만 골탕 대짜마련 시급


장흥군 관산읍 죽청뜰 대규모 농경지가 생활쓰레기와 갈대 등 퇴적물로 골몰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8일 장흥 관산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관산읍 소재지에서 유입되는 생활쓰레기와 2km에 이르는 고읍천(지방하천)에서 식생하는 수초(갈대)로 인해 대대위 농경지(농어촌공사 관리)가 상습 침수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콩레이’ 태풍으로 관산 죽교2구, 동촌, 하밭, 죽청 등 6개마을

농민들이 경작하는 15ha에 달하는 농경지로 퇴적물이 범람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 주민들은 앞으로 본격적인 우수기 때 100mm 정도 비만 내려도 70ha에 이르는 죽청평야가 침수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장흥군은 농어촌공사가 지난 2017년까지 죽청 앞바다로 빠져나가는 조유지에 대해 준설과 배수갑문 조절을 하지않는 바람에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측은 매년 조유지 준설과 배수갑문 관리비용으로 5억여원 이상 비용지출이 큰 부담이 된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군이 관리하는 고읍천에 일반쓰레기와 수초(갈대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농민들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최근 하천을 관리하는 장흥군과 물리답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를 방문 수조제거와 퇴적물 제거를 해달라고 민원을 했지만 서로 떠넘기고 책임전가하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고구마 조직배양 무병묘 영암군, 분양 신청 접수

영암군은 지역 특화작목인 고구마의 조직배양 무병묘를 오는 30일까지 분양한다. 이번 분양은 안정적 생산과 재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금년 하반기 공급할 바이러스 무병묘이다. 이를 위해 군은 바이러스가 없는 생장점을 조직배양 해 고구마 3품종 무병묘를 만들어 9월-11월(추기)과 이듬해 1월-3월(춘기)에 8만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사업에 나섰다. 조직배양묘는 일반묘에 비해 바이러스 재감염률은 5%이하로 낮고 수량과 상품화율은 20%이상 증가돼 고구마 재배농가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1686,50㎡(510평) 건물:3,000,80㎡(907,74평)
지상2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 (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55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136,20㎡(41,20평) 건물:265,58㎡(80,34평)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15억 문화전당역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하남동 (준주거지역)
토지:979,70㎡(296,36평) 건물:1928,89㎡(583,49평)
지상4층 매매가:65억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434,44㎡(131,4평) 건물:2536,91㎡(767,42평)
지하층 지상7층 매매가:55억 이마트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5700㎡(1700평) 건물:6500㎡(1900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130억 건물2동, 신법적용 350베드 가능 요양원 40베드 별도, 주차장넓음

경매

- ★ [공장]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토지:344,1㎡(1040,9평) 건물:1361,5㎡(411,9평) 감정가 16억8천6백만원 최저가 16억8천6백만원
- ★ [공장용지] 나주시 산포면 신도리 대지:11065,1㎡(3347,2평) 감정가 24억7천8백만원 최저가 (70%) 17억3천5백만원
- ★ [근린주택] 영광군 법성면 토지:708㎡(214,2평) 건물:266,61㎡(80,6평) 감정가 5억2천8백만원 최저가 (70%) 3억7천만원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대지 25351㎡(7668,7평)전원주택단지적합 감정가 27억1천2백255만원 최저가(70%)18억9천8백79만원
- ★ [의료시설] 함평군 월야면 월계리 대지:11139㎡(3369,5평) 건물:5530,56㎡(1612,5평) 감정가 40억3천5백만원 최저가(70%) 28억2천4백만원
- ★ [양계장] 함평군 월야면 양정리 대지:136695,78㎡(41350,5평) 건물:24737,02㎡(7482,9평) 감정가 62억7천2백만원 최저가(70%) 43억9천만원
- ★ [숙박시설] 광산구 우산동 대지:627,8㎡(189,9평) 건물:2122,01㎡(641,9평) 감정가 35억7천만원 최저가 25억
- ★ [주유소] 서구 농성동 토지 8131,8㎡(246,174평) 건물 320,23㎡(278,37평) 감정가 15억5천만원 최저가 15억5천만원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토지:5,385㎡(1629평) 매매가:60억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분할가능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상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64억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15,953㎡(4825평) 매매가:12억1천만 자연취락지구, 10m도로접
- ★ [토지]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